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제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눈 앞에 있는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 23:31-32 말씀에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롬5:12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뿐 아니라 죄가 사람의 모든 본성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에게 미혹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 후 모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렘10:6)"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왕하19:15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또한 딤전 6:15-16 말씀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본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하만국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들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요16:9).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도 에덴동산에서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창3:2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20:5 말씀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말씀하시며 신4:24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8:19-20 말씀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후1:8-9 말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미리 경고하여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렘10:2에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를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다 헐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시115:4-8).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이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은 모두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출3:8). 그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상기시켜주는 땅입니다.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라보며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 살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신11:10-17). 신11:11-12 말씀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는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또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

에 가게 될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꼭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실 때 지금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